

Cross Pollinating:
Thursday Morning Email Devotion for April 25, 2024

Aloha MPC ‘Ohana,

I recently read an interesting article about genetic variation among populations on remote Pacific islands. (Yes, evidently, I *did* have some time on my hands.)

Ever since Charles Darwin visited the Galapagos, scientists have recognized that the isolation of remote islands can do strange things to the gene pool on those islands. And so, one of the challenges for the species living there (humans, plants, and animals) is to maintain sufficient genetic diversity (and hence not to become inbred.)

In fact, as I ruminated on the article, the thought occurred to me that remote islands in the ocean are not the only place on earth where this sort of thing can be a challenge. For example, I’m mindful that my own ancestors lived once upon a time in some very geographically isolated ethnic enclaves in Eastern Europe. That diminished their gene pool over time, to the extent that people of my particular ancestry are now statistically much more prone to develop dementia in old age than the overall population. I don’t dwell much on that myself (except when I can’t find my car in the Walmart parking lot), but every once in a while I do wish that my ancestors had “cross pollinated” a bit more than they did with their neighbors. Because their isolation wasn’t a good thing in the long run.

And the same holds true, I believe, for churches. Whenever a group of people love each other as deeply as the members of a particular church family (hopefully) do, it’s very natural for those people to want to spend lots of time together. And that can bring with it many blessings – deep relationships, lifelong friendships, mutual encouragement and support, and brotherly/sisterly love, chief among them. All of which is great.

But true as that is, every once in a while it can also be healthy for the people of any given church to “cross pollinate” a bit too. To engage meaningfully, that is, and on a spiritual level with Christians from other churches.

This is one reason why having worship services several times a year with our sister churches here at MPC is good. It’s good for us, and it’s good for them.

It’s also why it’s good that we have partners from other churches who sometimes join with us on service projects and other mission endeavors.

It’s why our connection to other churches here on island and through our presbytery is a boon too.

And it’s why opportunities like the one which some of our MPC ladies will have this coming weekend to join sisters in Christ from some other churches for a women’s retreat are also neat.

But it doesn't have to be anything that formal, either. What I mean is, I'd imagine we all probably know folks (friends, neighbors, etc.) who belong to some other church. But how often do we make it a point intentionally to "compare notes" with them?

Speaking for myself, I let busyness prevent me from doing it as often as I should. But anytime I have done so, it's always been my humble experience that I gain something from "cross pollinating" like that with another believer from another church. Because my perspective is broadened, and my appreciation for just how deep and wide the grace of God really is, is enriched.

So, let me humbly encourage you to give it a try something. Think of someone you know who loves their church as much as you love ours. Have lunch or coffee or something together – or visit each other's churches – and just see what happens. (Hint: you might experience God in some new way.)

Me ke aloha,
Pastor Ron

교차 수분: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이메일 묵상

알로하 MPC '오하나,

나는 최근 태평양 외딴 섬의 개체군 간의 유전적 변이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 분명히 시간이 좀 _있었습니다_.)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한 이후로 과학자들은 외딴 섬의 고립이 그 섬의 유전자 풀에 이상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왔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사는 종(인간, 식물, 동물)이 직면한 과제 중 하나는 충분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여 근친교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기사를 꼼꼼이 생각하면서 지구상에서 이런 일이 어려울 수 있는 곳은 바다에 있는 외딴 섬들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내 조상이 옛날 옛적에 동유럽의 지리적으로 매우 고립된 소수민족 거주지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전자 풀을 감소시켰고, 이제 내 특정 조상의 사람들은 전체 인구보다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나 자신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월마트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끔 내 조상이 이웃보다 조금 더 교차 수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그들의 고립은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믿습니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특정 교회 식구들만큼 깊이 서로 사랑할 때마다(바라건대), 그 사람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깊은 관계, 평생의 우정, 상호 격려와 지원, 형제자매 사랑 등 많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때때로 특정 교회의 사람들이 약간의 "교차수분"을 하는 것도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차원에서 의미 있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곳 MPC에서 우리 자매 교회들과 함께 일 년에 여러 차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고 그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때때로 봉사 프로젝트와 기타 선교 활동에 함께 동참하는 다른 교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섬에 있는 다른 교회들과 노회를 통해 연결되는 것이 유익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MPC 여성 중 일부가 이번 주말에 다른 교회의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과 함께 여성 수련회를 가질 기회와 같은 기회도 좋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형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은, 우리 모두는 아마도 다른 교회에 속한 사람들(친구, 이웃 등)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들과 "음표를 비교"하는 것을 얼마나 자주 강조합니까?

나 자신을 위해 말하자면, 나는 바빠서 내가 해야 할 만큼 자주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다른 교회의 다른 신자들과 그런 "교배 수분"을 통해 뭔가를 얻는 것은 항상 나의 겸손한 경험이었습니다.

나의 관점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얼마나 깊고 넓은지에 대한 감사가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 시도해 보시길 겸손히 권해 드립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누군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점심이나 커피 등을 함께 먹거나 서로의 교회를 방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힌트: 당신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 알로하,

론 목사